

<2010년 6월 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자기 마음이 느끼는 대로, 몸이 느끼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보여 주고, 행동하여 느끼고 겪게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따라간다.

2.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뇌와 마음에 인식시켜 주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게 된다. 연속적으로 어떤 것을 뇌에 인식시켜 놓으면 그 뇌는 스스로 그것을 지울 수가 없다. 이는 연속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뇌에 입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인식을 없애려면 또 다른 것을 뇌에 인식시켜 줘야 한다. 그러면 뇌가 새로운 것을 인식하여 이전에 입력된 내용을 뒤엎게 된다.

이전 것보다 더 좋고 나은 것을 뇌에 인식시켜 주면 이전에 뇌에 인식되고 세뇌된 것을 스스로 부정함으로 그제야 뇌가 올바른 판단을 하여 이전의 인식을 뇌에서 제거하게 된다. 마치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손에 들어와야 그제야 이전의 것을 버리게 되는 것과 같다.

어떤 것은 잘못된 이론인데도 자신이 그것을 옳게 인정하고 좋은 이론으로 판단하고 인식하고 살면 스스로 그 인식을 버리지 못한다. 더 이상적이고 옳은 것을 듣고 자신이 인정할 때 그제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이론을 버리게 된다. 뇌에 인식시키고 입력시켜 놓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대로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뇌가 제대로 인식하고 뇌에 옳은 것이 입력되어 있어야 옳은 행실을 하게 된다.

3. 누구든지 행해야 나쁜 생각과 행실이 잘라지고 없어진다.
네 행위가 칼이다.

각을 일체 시키고,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과 사랑으로 일체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나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생각과 말씀과 뜻대로 행함으로 나쁜 생각과 행실을 자르고 생활의 승리를 이루고 영적인 승리까지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오늘도 기도하여 먼저 주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